

어린이 책꽂이

▲아빠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전작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에 이어 아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리운 말쑥꾸러기 꼬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500원>

▲못 말리는 호기심 사전=랑과 우주, 식물, 동물, 과학, 인체, 역사, 인물 등 7개의 주제를 360가지 질문으로 풀어냈다.



궁금한 곳을 꼭 짚어주는 간결한 질문을 읽다보면 궁금증이 싹 해결된다.

<주니어 랜덤·1만원>

▲석유야 반기워!=사과가 없으면 배를 먹으면 되지만, 만약 석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인 석유의 역사와 석유발굴의 과학적 원리 등이 재미있게 설명돼 있다.



<영교출판·8천500원>

▲노빈슨 세종대왕의 화표를 지켜라=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신나는 노빈슨 한국사 시리즈'. 노빈슨이 세종대왕과 장영실을 만나 조선 초기의 문화와 시대를 앞서간 과학을 배운다.



<뜨인돌·9천500원>

▲목걸이=오래 세월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명작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프랑스 소설가인 모파상의 '목걸이'는 인간의 허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 오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세움·9천500원>

황당·기괴한 111가지 과학실험

매드 사이언스 북 레토 슈나이더 지음



과학은 무모하다. 아니 엉뚱하고 짓궂다. 하지만 그런 무모함과 엉뚱함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스위스와 독일에서 과학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레토 슈나이더는 '매드 사이언스 북'에서 14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에서 펼쳐졌던 기괴하고 황당한 실험 사례들을 모았다.



해리 할로 박사가 천으로 만든 가짜 어머니에게 안긴 새끼 원숭이를 관찰하고 있다.

111가지 '미친' 실험의 종류와 범위는 그야말로 방대하다. 1304년 디트리히 폰 프라이베르크가 커다란 유리공으로 무지개 생성원리를 증명한 실험부터 2003년의 개와 로봇의 친밀성 실험까지 700년에 걸친 과학사의 이채롭고 빛나는 성과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마리화나를 먹은 거미와 오줌물을 먹은 거미는 어떤 거미줄을 칠까, 1달짜리 지폐를 경매에 부치면 얼마에 팔릴까,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작업'을 거는 가장 성공적인 멘트는 무엇일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및 일반상대성이론을 대중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실험, 인간과 동물의 몸을 연구하는 실험, 또 사회심리학적 실험까지 오늘날의 과학을 만든 역사적인 실험들과 함께 언뜻 엉뚱하고 황당하며 기괴하고 망측스럽거나 배를 움켜쥐고 웃게 만드는 실험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미친' 실험을 일까? 이 책의 실험들을 관통하는 '미친'의 의미는 다양한 실험들만큼이나 폭넓은 것이지만, 결국은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대로, 세상과 인생의 비밀을 탐구하는 인간의 열정과 광기로 '미쳐서 미친' 실험들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아진 것들이다.

'미친' 한 예로, 유산균 음료 광고로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2005년 노벨의학상 수상자 배리 마셜 박사가 있다.

그는 1984년 위염 환자의 위에서 나온 10억 마리의 박테리아를 물에 섞어 마셨다. 당시의 통념과 달리, 쇠뿔도 녹여버리는 위액에서 박테

리아(헬리코박터 필로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균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10일 후, 그는 위염에 걸렸다. 이제 위염이 위궤양으로 발전할 기다려던 그에게, 실험을 알게 된 아내가 말했다. "실험을 그만둘래, 아예 집을 나갈래?"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의 끔찍한 실험도 행해졌다. 1885년 프랑스에서는 단두대에서 잘린 머리에 전기를 흘려보는 실험을 했다.

라보르드는 잘려 나간 머리의 왼쪽 목 동맥을 개의 목동맥과 연결하고 오른쪽 목 동맥으로는 소의 피를 주사했다. 그리고 전기를 흘려주자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고 이가 떨리는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얼마동안 의식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처럼 이 책은 단순히 기발한 실험들을 보여주고 웃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스스로 미쳤음을 부인하지 않는 과학사의 풍경을 통해 과학의 진보가 광기에 가까운 열정을 통해 가능했음을 알게 한다.

책은 또 130여 장의 진귀한 사진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www.madsciencbook.com)도 소개해 보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옮긴이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도 아시아 초중이라는 기성층을 연구하는 엄기선 교수와 동양안충을 연구하는 서민 교수 등 한국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이 책에 소개된 실험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옮긴이와 출판사는 그 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불상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는 경고성 문구도 재밌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은가?

<뿌리와 이파리·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존 레이놀즈 가디너 '조금만 조금만 더'

가을에 비치는 햇살은 넉넉하고 여유롭다. 시인들은 가을이든 수 편이든 속속 땀을 흘린다. 눈에 들어온 자연은 정취 가득한 언어를 쏟아내기에 충분하다. 가을은 그만큼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계절이다.

또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비단 가을뿐만 아니라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은 따로 없다. 아무 때나 독서 삼매경에 빠지면 그만이다. 일선에 있다 보니 어린이들의 다양한 독서 방법을 목격하게 된다.

한 어린이는 교실에 들어서면 다짜고짜 입을 책부터 골라 들고 책상에 앉는다. 인사는 하면서 들어오지만 생각은 독서에 꽂혀 있는 것이다. 그날 배워야 할 공부는 뒷전인 채 책을 읽는데 열중이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면 독서로 다져진 이해력과 상상력 때문에 수업을 따라오는 속도와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력은 다른 어린이들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연한 기회에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게 됐다.

"책을 많이 읽는구나! 재밌니?"

호기심 = 독서광



아이의 뻘뻘한 대답을 했지만 이야기인즉 호기심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즐겁다는 것이다. 그렇다! 호기심이 있어야 궁금증이 생긴다. 그렇다면 책이란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유일한 보약이다.

또 다른 어린이는 독서 방법은 아주 도발적이다. 책을 읽다가도 중간에 일어나서 질문을 한다. 어려운 낱말은 물론이고 가끔 맞춤법까지 지적해서 나를 평가(?)를 내린다. 궁금한 것이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적성이 풀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서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에 대한 충족감을 맛보아야 하는 독자에 속한다. 이 어린이는 곤란한 질문 끝날 때 나를 종종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처럼 두 어린이의 호기심과 궁금증은 작가의 묘이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켜 책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독자가 원한만큼 마음의 양식을 주고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여 충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출신 작가 존 레이놀즈 가디너의 '조금만, 조금만 더'는 전설을 바탕으로 쓰여진 동화책이다. 주인공 윌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감자 농장을 일구며 살고 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의사 선생님은 마을에 생긴 병 때문이라고 한다. 불과 얼 실밖에 안된 윌리는 혼자서 힘들게 감자 수확을 해내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한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진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윌리는 할아버지가 밀린 세금 때문에 농장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윌리는 농장을 지키기 위해,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를 위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 동화 역시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에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게 한다. 책 한 권 속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증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책을 읽기 싫어하거나, 또는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호기심과 궁금증이 들어있는 책 한 권이라면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일지라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것이다.

안영목(광주일보 신춘문예회 사무국장·동화 작가)



친구·사랑 문제 '김어준식 인생 상담'

건투를 본다 김어준 지음



'판지일보' 총수로 유명한 김어준이 독특한 인생 상담집 '건투를 본다'를 펴냈다. 풍자와 뼈뺀 시선, 유머가 생명인 '판지일보' 출신 담담 '김어준의 정면돌파 인생 메뉴얼'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유쾌하다.

책은 '나-삶에 대한 기본 태도', '가족-인간에 대한 예의', '친구-선택의 순간', '직장-개인과 조직의 갈등', '연인-사랑의 원리'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80여건을 상담해준다.

'아부하면서 제 뒤통수 치는 동료와 어떻게 지낼까?', '친구가 '있는 집' 자식인 게 부럽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내가 하찮은 사람 같아요', '여친이 돈 한푼 쓰지 않습니다' 등의 질문에 답하는 김어준식 처방에 절로 웃음이 나온다.

일러스트레이터 현대준의 삽화도 재미있다. <푸른솔·1만5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친을 위해 더블침대를 샀어요'

그 여자의 침대 박현욱 지음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아내가 결혼했다'의 작가 박현욱이 첫번째 단편소설집 '그 여자의 침대'를 펴냈다. 수록작은 지난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문학잡지에 게재된 작품들이다.

표제작 '그 여자의 침대'는 낡은 철제 침대를 버리고 애인을 위해 더블 침대를 구입한 30대 여성이 '침대'에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또 프로그머가 되려는 19살의 청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무기'와 고백하지 못한 소년의 첫사랑을 그린 '해피 버스테이'는 독특한 성장담이다.

그밖에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 한 남자와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생명의 전화', 아내의 기출로 홀로 남겨진 남자가 등장하는 '그 사이' 등 모두 8편이 실려 있다. <문학동네·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재, 정육무세원,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11월 17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기본이론, 심화이론,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광주고시학원, 227-8003

한국의 유학! 국내에서 가능!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국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010-6834-6253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롭고,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개강 11월 10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361-8111